

제11권 14호

2021. 7. 5~2021. 7. 18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 |
| 이슈분석 | 美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및 향후 과제 |
| 금융경영브리프 | 커뮤니티 기반 공간으로 진화하는 은행 점포
美 대형은행 영국 리테일 시장 진출 확대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코로나 우려 재부각 속 7월 금통위 주시
외 환: 美정부부채 한도 불확실성에 유의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황선경(skhwang)
연구위원 박워렌(warrenpark)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
- 04 **이슈분석** 美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및 향후 과제
- 08 **금융경영브리프** 커뮤니티 기반 공간으로 진화하는 은행 점포
美 대형은행 영국 리테일 시장 진출 확대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코로나 우려 재부각 속 7월 금통위 주시
외 환: 美정부부채 한도 불확실성에 유의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주택금융정책의 딜레마*

유 경 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kwyoo@smu.ac.kr)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으로 주택소유가 증가하고 자산분배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부담가능한 주거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또 다른 주택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주거비와 부채 상승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에 기반한 주택보유정책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제공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주택금융정책의 명과 암

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재이자 가계 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주택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더 나은 주거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자산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주택의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제시되고,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요지부동처럼 느껴진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국민들의 주택소유에 초점을 맞춘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이 제기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업무가 기업대상의 도매금융에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에 초점을 둔 소매금융으로 바뀌면서 주택금융정책이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은 재정투입 없이 ‘내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정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LTV, 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있었지만,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을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소유는 증대되었다.^[1]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낮게 유지된 이자율과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 30~40대 젊은 계층들의 부채를 활용한 주택마련이 늘면서 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주택시장의 자가소유 확대와 가격상승은 자산분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빚을 이용한 자가주택 매입은 순자산 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의 보급 확대로 주택소유 확대 목표는 달성되고 있지만, 부담 가능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

하지만 주택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기대와 높아진 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었고, 늦게라도 자산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올라타고자 하는 젊은 계층들의 부채를 활용한 추격매수가 발생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주택소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주택금융정책의 목표가 부채증대를 통해 달성되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이제는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관련 비용지출을 늘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주택금융의 보급 확대를 통해 주택소유 확대라는 목표는 달성되고 있지만 부담 가능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 주택금융정책의 추가 비용

자가소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의 추진은 추가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부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여 자가 소유자가 되고 기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단일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효용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이용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집값 역시 상승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서비스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롭게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계층에게는 그야말로 ‘넘사벽’ 가격이 되어 구매 가능한 가격의 주택공급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한편, 자산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아직 올라타지 못한 젊은 계층들은 투자가 용이한 다른 위험자산을 찾으며 과거 일생주기보다 빠른 시기에 투자자

[1]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64.6%에 달했던 고소득계층의 자가점유율이 2019년에는 76.1%까지 상승하였다. 중위소득계층 역시 동 기간 중 53.8%에서 59.6% 상승하였다.


[2] Woloszko N. and O.Causa, Housing and wealth inequality: a story of policy trade-offs, VOX, CEPR Policy Portal, 2020 March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주거비 격차가 확대되고 아예 저축은 그만두고 현재 소비에 충실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생활격차는 물론 늘어난 주거비 부담과 높아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자산축적 기회는 감소될 것이다. 결국 높아진 자산가격은 자산분배에 있어서 일부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계층 간 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의 위축 가능성,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저성장국면의 돌입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의 영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낳고 있다. 향후 금리상승, 자산가격 급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채를 통해 어렵게 주택을 마련한 계층이나 저소득 취약가구들이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정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택정책 필요

현재 높아진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시급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한 채를 보유한 주택소유자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입자 모두 주택가격 급등을 바라지는 않는다.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주택소유를 확대시킬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일견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관련된 기대가 형성되었을 때 부채접근성 증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기 쉽다.

최소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야 자산가격 급등-부채 증대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으로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아울러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목표달성을 금융의 문제로 또 시장에게만 일임하기에는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너무 크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부채에 기반한 주택금융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주택정책이 부채 증대와 자산가격 급등을 가져오는 주택금융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서비스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과 채무자의 빚상환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들 간의 생활의 격차는 보다 확대될 것

주택소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美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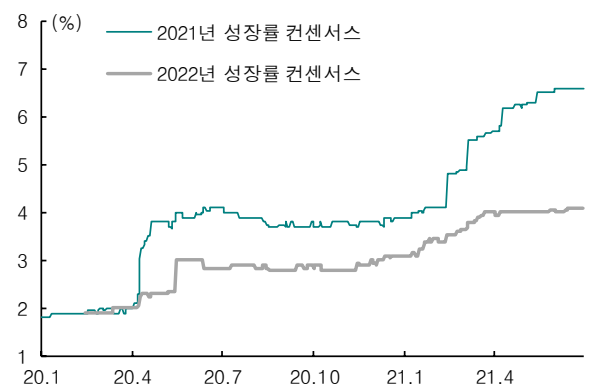
김수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코로나 위기가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과 백신 조기 공급으로 빠르게 진정되면서 연준의 정책 정상화도 초입에 들어섰다. 연준은 작년 통화정책전략을 개정한 후 사후대응적 정상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테이퍼링은 빨라야 연말, 금리인상은 202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데다 내년 FOMC 의결권 변화 역시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대차대조표 수준에 대한 논란, 코로나 위기로 변화한 경제 환경 속 새로운 통화정책전략 시도와 정책신뢰 확보도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물가 급등으로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단계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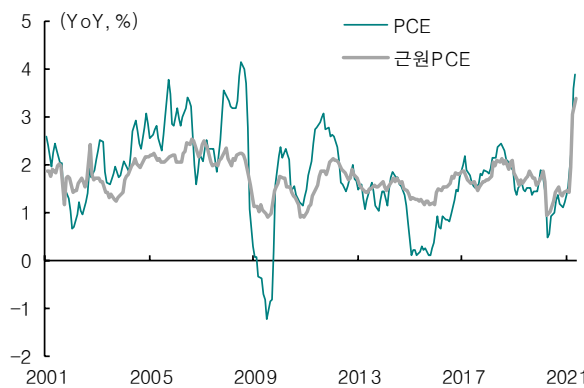
- 코로나 위기가 연준의 조기 대응과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정책 조합으로 빠르게 회복된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바이든 부양책과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
 - 고용과 기업파산 방지 중심의 정책은 영구 해고를 줄여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유도했으며 연준의 조기 대응은 보건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 차단
- 이에 따라 美 경제 성장률은 올해 6%대 후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용 역시 실업수당 정책 종료와 백신 보급으로 수개월 내 강한 회복이 예상
- 이러한 가운데, 물가가 기저효과와 이연수요, 공급 병목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하자 FOMC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
 - 종전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자산매입 규모 조절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암시

■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 추세(Bloomberg IB 서베이)



자료 : Bloomberg

■ 미국 PCE와 Core PCE



자료 : FRED

■ 연준은 지난해 통화정책전략을 개정하면서 결과 기반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이드런스 제시

- 연준은 '20.8월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을 개정하면서 선제적인 정책 정상화를 시행하지 않고 사후대응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제시
 - 동 전략 하에 FOMC는 광범위한 완전고용 달성, 상당기간 완만하게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 충족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결과 기반의 가이드런스 발표
- 이는 과거 정상화 과정에서 완전고용에 대한 평가 오류로 저물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과오를 경계하고 장기 이탈한 노동자 복귀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
 - 연준은 '15.12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이후에도 4년여 간 추가적인 고용회복이 진행되는 등 경제 내 유향노동력(slack)이 임금과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 또한 연준은 경제구조 변화와 지표의 불안정성으로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의 경제적 비용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입장

■ 이러한 정상화 원칙 하에 테이퍼링은 내년 초, 금리인상은 2023년 시작이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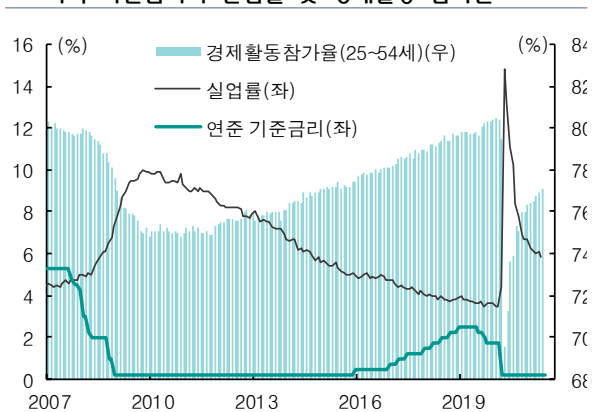
-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인상 시점의 유연성 확보와 금융안정 이슈로 조기 테이퍼링 의견이 제기되나 실질적 개시는 고용의 개선을 확인한 연말 또는 내년 초 예상
 - 과거 테이퍼링 속도로 자산매입을 감축(매달 100억\$씩)한다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초 테이퍼링을 시작할 경우 금리인상 시점은 '22년말 이후부터 가능
- 금리인상은 양적완화가 종료된 후 202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 달성이 어려워 시장 예상보다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
 - 과거에는 완전고용 판단 어려움, 저유가로 QE 종료 후 금리인상까지 14개월 소요
- 특히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별 회복 속도 차별화에 따른 구인-구직 미스매치, 장기 이탈 노동자들의 복귀 제한 등으로 광범위한 고용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연준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 변화(2020.8월)

부문	주요 내용과 의미
전략 변경의 배경	-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과 제로금리하한(ELB) 제약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 제고
고용목표 관련	- 광범위하고 표용적인 고용 실현 - 정책결정 기준을 완전고용으로부터의 "편차"에서 "부족"으로 변경 → 완전고용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 → 포용적인 고용은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을 보호해 후생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
물가목표 관련	- 평균물가목표제(AIT) 도입 → 장기간의 저물가를 타개하기 위함

자료 : Fed,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미국 기준금리와 실업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FRED, Bond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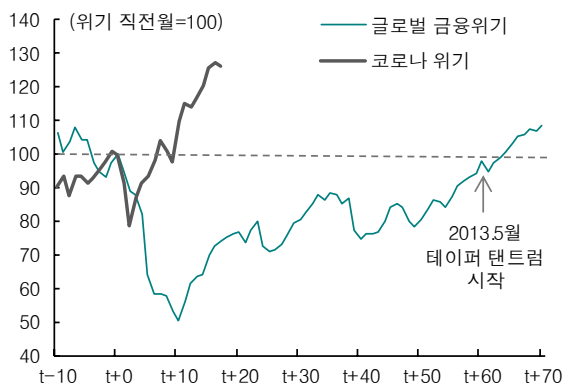
■ 금융시장의 학습효과로 과거와 같은 패닉은 없겠지만 일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염두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 출구전략 과정에서 테이퍼트럼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시장의 학습효과와 연준의 신중한 접근으로 과거와 같은 패닉 가능성은 제한적
- 특히 미국 채권시장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데다 테이퍼트럼 당시 금리는 급등한 이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하락 전환
 - '13.5월 1.63%에서 9월 3.0%로 급등 후 '14년부터 하락해 '15년초 1.6%대 재진입
- 또한 과거 정상화 경험으로 향후 연준의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한데다 연준 대처대 조표에 대한 인식 변화(B/S 잔액 유지 기대)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 과거 출구전략에서 연준은 B/S 축소를 시도했지만 단기자금시장 불안으로 실패
- 다만 금융위기와는 달리 금변에는 위험자산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빠르게 회복되었고 통화량 증가도 크다는 점에서 일부 시장은 조정압력이 부각될 가능성

■ FOMC 의결권 변화, 통화정책 목표 상층 역시 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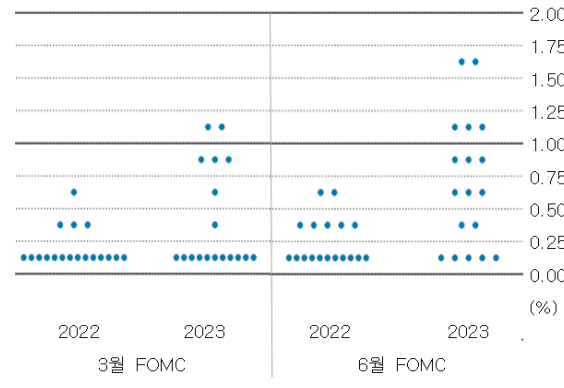
- 내년 새롭게 의결권을 갖는 FOMC 참가자(11인 중 4인) 다수가 매파로 조기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연준 내 이견 확대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
 - 다만 결과 기반의 정상화 방침으로 조기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누증되면서 양대목표가 상충될 수 있고 구조적 저물가 기조 지속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수 있음
 - 연준 내부적으로도 감내 가능한 인플레이션 수준과 기간에 대한 합의가 부족
- 또한 노동 수급 미스매치로 유희노동에 따른 임금 하락 연결고리가 약화된 반면, 공급 병목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며 정상화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당시 세계주가 비교



주1) : 글로벌 주가 지수는 MSCI 기준, 2. 금융위기 기준월은 주가 하락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8.7월, 코로나 위기는 2020.2월
 자료 : Bloomberg

■ FOMC 점도표 상 참가자들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




자료 :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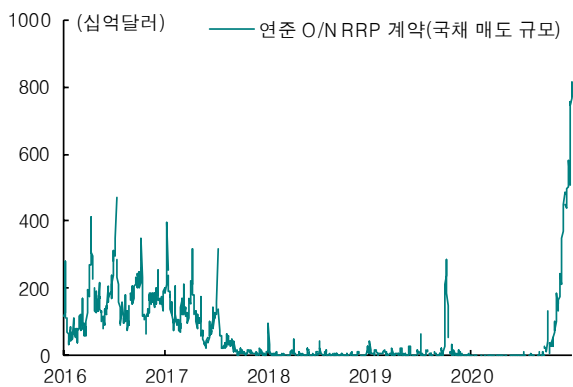
■ 단기자금시장 불안정도 통화정책 운영의 고민을 높이며 시장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

- 대규모 재정 집행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MMF 자금 유입 급증, 단기국채 품귀로 연준 역레포 창구에 자금유입이 급증하며 연준은 단기자금 흡수를 지속하는 상황
 - '21.3월 SLR 규제 완화 해제(비율 준수를 위한 지준 증가 억제 → 예금에서 MMF로 자금 이동) 및 역레포(RRP) 한도 증액, 차익거래유인으로 4월부터 RRP거래 급증
- 특히 단기자금시장의 과잉 유동성으로 정책금리(EFFR) 목표 유지가 어려워지자 6월 FOMC는 정책목표 상하단인 IOER(지준금리)과 역레포 금리를 5bp씩 인상
 - 역레포(RRP) 금리 인상(0%→0.05%)으로 RRP 창구로의 자금 유입이 추가 급증
- 이러한 자금 흡수는 재정집행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되겠으며 단기 잉여자금에 따른 정책금리 관리 어려움과 시장 혼선은 통화정책 운영의 고민을 높일 전망
 - '21.4월부터 6월까지 연준이 RRP를 통해 흡수한 자금(\$0.7조)이 동기간 채권매입 규모(\$0.4조)보다 커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시그널로 비춰질 소지

■ 중장기적으로 적정 대차대조표 수준과 새로운 통화정책 전략 운용도 연준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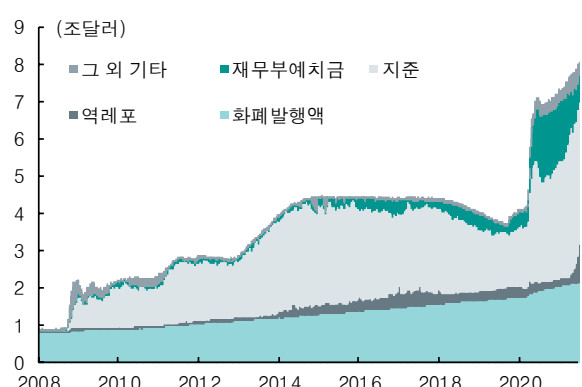
- 중장기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는 연준의 적정 대차대조표 수준과 QE에 대한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 논란, 재정의 화폐화 등이 이슈가 될 전망
 - 특히 B/S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과도한 유동성 의존도, 재정의 화폐화 유인 확대,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과 신뢰 약화 등 부작용이 대두될 가능성
- 또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구조변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개정된 통화정책 전략의 적절성 논란도 부상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정책신뢰 확보도 중요한 과제
 - 일례로, 개정된 통화정책 전략은 필립스 곡선 평탄화를 전제로 했으나, 위기 이후 실업률과 물가 간 관계가 강화될 경우 후행적 조치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 

■ 연준 역레포 창구 자금유입 급증



자료 : FRED

■ 연준 대차대조표(B/S) 상 부채 항목



자료 : FRED

커뮤니티 기반 공간으로 진화하는 은행 지점

황 선 경 수석연구원(skhwang@hanafn.com)

디지털 전환으로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객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점은 여전히 전통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이다. 다만 지점 역할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된 만큼 지점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 은행들은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Space)’ 또는 ‘장소(Venue)’로서 지점 설계를 시도하며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도 주 이용층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미래 지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점은 인적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Space)’으로 진화¹⁾

- 코로나19 이후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은행 지점도 커뮤니티 소속 구성원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
 - 재택근무의 장기화로 인해 일과 생활이 ‘집’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소원했던 이웃간 관계에 활기가 생기고 교류도 잦아지면서 공동 공간의 필요성 증대
 -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기업이 재택근무의 확대를 검토하는 등 재택근무의 보편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권 형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지역 기반의 은행 지점들은 팬데믹 이후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공간인 ‘Life Style Community’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점은 금융교육을 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축하, 공동 학습 등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소로서 고객관계 유지 및 신규 고객 창출이 가능

■ 해외 금융사는 지점을 인적교류를 위한 ‘장소(Venue)’로 활용하며 고객 관계 강화

- **(B works)** 영국 CYBG은행이 런칭한 ‘B Works’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시설을 운영하며 디지털 중심의 전략을 보완
 - 코워킹 스페이스, 세미나 공간, 요가 스튜디오, 이벤트 공간, 디지털 작품 제작을 위한 미디어룸 등으로 공간 구성
- **(ImagineCafe)** 스페인 CaixaBank의 디지털은행인 ‘ImaginBank’는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젊고 창의적인 지역 구성원들의 협업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무료 제공


[1] “Digital Banking’s Covid Boom Drives Branch Transformation”, The Financial Brand, 2021.3

- 팝업매장을 위한 이벤트 공간, 영화 관람을 위한 프로젝션 룸, 멀티미디어 공간 및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워크숍과 강연을 진행

- **(Frank)** 싱가포르 OCBC의 디지털은행 ‘Frank’는 고객관계 구축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세련된 디자인의 Frank Store를 운영

- 대학 캠퍼스, 쇼핑몰 내에 감각적인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여 상품 탐색 및 문의, 디지털서비스 체험 기능과 함께 카페 등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미래에도 지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space as venue’ 로서 역할 재정립 필요

- 앞선 사례들은 소규모 금융거래 중심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은행 지점이 디지털과 결합된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국내 은행들도 내방객이 감소하면서 채널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점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치 제고 노력은 미흡
 - 신한은행은 고객이 지점의 화상상담 창구에서 상담 전문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미래형 점포 ‘디지털트브랜치’ 오픈(2020.11)
 - KB국민은행은 AI 은행원의 영업점 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 AI상담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
- 국내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으로 무인화 되어가는 점포를 지역 내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고객관계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필요
 - 금융거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대면상담 중심의 금융 교육, 강연, 행사 등 인적 교류를 위한 ‘Life Style Community’로 진화하여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 

■ Learn, Work, Bank를 지향하는 B works



자료 : google

■ 디지털 전환 시대 지점의 역할과 전망

FDIC	모바일 banking과 하이테크 banking에 의해 지점이 과거 공룡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
JP Morgan	지점은 고객에게 모기지부터 투자 관련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를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
Mckinsey	지점 네트워크는 재무설계, 편의성 제공, 디지털 채널로의 변환 등에서 은행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쌓기 위해 중요한 역할
Banking Tech	디지털 기술과 옴니채널은 지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주도의 고객 상담 센터로 변모시킬 것
Accenture	영국은행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물리적 채널과 디지털 채널의 혼합

자료 : 글로벌 디지털 시대와 은행 지점의 역할, 국제금융센터

美 대형은행 영국 리테일 시장 진출 확대

워렌 박 연구위원(warrenpark@hanafn.com)

최근 골드만삭스에 이어 JP모건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이 영국 리테일 금융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양사는 그동안 IB 또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국 런던에서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였으나, 리테일 금융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었다.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은행(Marcus) 형태로 2018년 9월에 영국 리테일 금융 시장에 진출했고, JP모건은 올해 하반기에 진출할 예정이다. 영국 리테일뱅킹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대형은행들의 성공적 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의 영국 리테일 뱅킹 시장 진출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¹⁾

- 세계적인 IB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사업 및 지역 다변화를 위해 영국 시장 진출 노력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
 - 골드만삭스가 2018년 영국 리테일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최근 JP모건이 올해 하반기 영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
- 양행은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은행답게 그동안 영국에서 IB 또는 기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리테일 금융부문에서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

■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사업 다변화에 이어 지역 다변화를 위해 영국에 진출


- 약 150년 동안 IB와 기업금융 업무에만 집중해 오던 골드만삭스가 사업 다변화를 위해 2016년 10월 미국에서 Marcus라는 개인 대상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런칭
 - 저축계좌 및 개인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에는 개인재무관리(PFM) 서비스 Marcus Insights를, 2021년 2월에는 로보어드바이저(Marcus Invest)를 출시
- 지역 다변화를 위해 2018년 9월 영국에 진출하여 저축상품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약 70만명의 고객과 210억 파운드 이상의 예금 유치에 성공
- 그러나 예금 규모가 영국의 ring-fencing(소매금융업과 투자금융업의 분리) 기준인 250억 파운드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해당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풀서비스 디지털 은행보다는 자산관리(WM)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 1/4분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

[1] "JPMorgan buys investment platform Nutmeg in UK retail push," Reuters, 2021.06.18

■ JP모건은 Chase 브랜드 하 모바일앱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에 영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리테일 부문의 첫 해외진출 지역으로 영국을 선택,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구축한 디지털 전용 은행의 형태로 해당 시장에 진출할 계획
 - 이를 위해 이미 영국 내 400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짐
- 첫 번째 상품으로는 당좌예금 계좌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후 카드에서부터 모기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
- 한편, JP모건은 최근 영국 선도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회사인 Nutmeg 인수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대중부유층 대상의 WM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
 - Nutmeg는 14만명의 고객과 35억 파운드의 운용자산을 보유

■ 영국 네오뱅크 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 미국 은행의 진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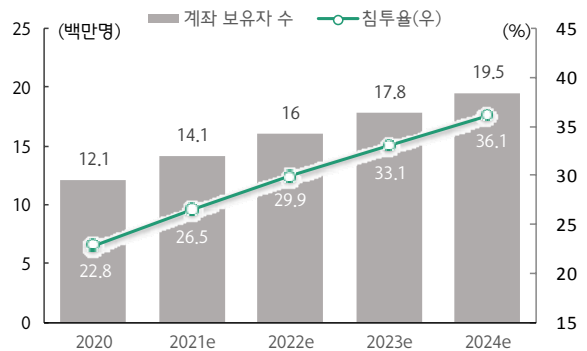
- 영국은 기존 4대 은행뿐만 아니라, Starling Bank 및 Monzo, Revolut 등 디지털 전용 네오뱅크(neobank)가 많아 경쟁이 이미 심화된 상태
- 이러한 네오뱅크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주춤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모델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네오뱅크들은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료와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모델을 보유
- 최근 영국 네오뱅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출 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및 JP모건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
 - 다만 양행은 IB분야 또는 미국 시장에서 유명하나 영국 내 인지도가 아직 미흡
- 미국 은행들의 영국 진출 성패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나, 디지털 은행 형태로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참고할만한 사례로서 주목 

■ 골드만삭스 Marcus의 미국과 영국 상품/서비스 비교

구분	Marcus (美)	Marcus (英)
출시일	2016년 10월	2018년 9월
예금 규모	960억 달러 ('20.10월 기준)	210억 파운드 ('21.1월 기준)
모바일앱	✓ ('20.1월 출시)	✓ ('21.6월 출시)
Checking 계좌	'21년 하반기 예정	X
Savings 상품	저축계좌, CD상품	저축계좌, Cash ISA
개인 재무관리(PFM) (Marcus Insights)	✓	X
개인 대출	✓	X
로보어드바이저 (Marcus Invest)	✓	'22.1Q 예정

자료 : 각종 자료

■ 영국 내 디지털 전용 은행 계좌 보유자 수 및 침투율



자료 : eMarketer(2020.06)

금리: 코로나 우려 재부각 속 7월 금통위 주시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美 국채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포지션 조정과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이 제한되었다. 반면 국내는 한은의 강한 연내 금리인상 의지 표명으로 상승압력이 부각되었다. 최근의 물가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판단을 시장이 수용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은 하락 전환했으나, 구조적 요인이 부각될 시 고물가 기조는 내년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델타변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7월 금통위에서의 경기판단 및 스탠스 변화가 주목된다.

■ 미국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좁은 범위 내 등락

- 美 연준 내 테이퍼링 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연내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을 선제적으로 축소하자는 ‘2단계 테이퍼링’ 주장이 제기
 - 일부 연준 위원은 과열된 주택시장에 더 이상 연준의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 6월 FOMC에서 연준이 단기유동성 흡수를 위해 역레포 금리를 인상(0% → 0.05%) 하자 역레포 유입액이 급증해 6.30일 사상최대 규모인 9,919억 달러를 기록
- 美 10년물 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분기말 포지션 조정에 따른 기관의 매수 수요 확대와 델타변이 불확실성 부각으로 상승폭이 제한
 - 미국채 2/10년 금리(%): 0.25/1.49(6.21일) → 0.27/1.52(6.25일) → 0.25/1.46(7.1일)


■ 국내 금리는 한은의 강한 연내 금리인상 의지 표명으로 상승 압력이 부각

-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보고를 통해 연내 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 하면서, 코로나19發 금리인하를 되돌리는 것은 긴축이 아님을 강조
 - 한은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 두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하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
-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심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 시장금리는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로 장단기물이 급등하고 8월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으나, 코로나 불확실성 재부각으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축소
 - 국고 3년/10년 금리(%): 1.36/2.01(6.21일) → 1.44/2.10(6.25일) → 1.48/2.10(7.1일)

■ 시장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구조적 고물가 요인에 유의할 필요

- 5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美 경제의 가파른 회복 속 이연(pent-up)소비 급증으로 3.4%(YoY) 상승하며 29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월비 상승폭은 0.5%로 축소
 - 세부항목별로는 재화(0.7%)와 서비스(0.3%) 모두 4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자동차 및 부품(3.8%→2.8%), 운송서비스(3.2%→0.2%)가 큰 폭으로 둔화
-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물가급등이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시장이 상당부분 수용하며 시장의 물가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기대인플레이는 5월 정점 이후 하락 전환
 - 연준은 고용지표의 회복을 우선시하며 물가의 일정수준 오버슈팅을 허용
- 물가는 기저효과 소멸 이후 안정 예상이 우세하나, 주택가 급등, 구인난 꺾임금 상승, 공급망 회복 지연 등 구조적 요인 부각 시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
-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를 거쳐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의 장기적 파급효과에도 유의할 필요
 - (예시)금속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에 파급되는데 약 1개월 소요되나, 소비자물가에는 11개월 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는 가운데, 7월 금통위에서의 스탠스 변화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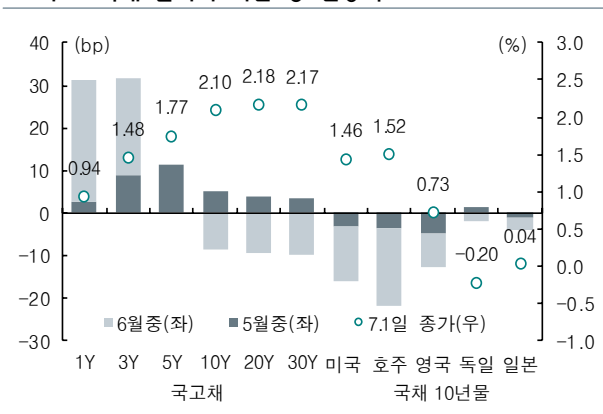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져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이며, 6월 고용지표와 물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고용회복 강도는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가늠자 역할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
- 국내는 델타변이 불확실성으로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금통위원들의 경기판단 및 스탠스 변화를 주시할 필요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40%~1.53%, 2.05~2.18% 범위로 전망 

■ 美 PCE 세부항목 상승률 (단위: %, MoM)

항목	3월	4월	5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0.6	0.6	0.4
PCE excluding food and energy (근원PCE)	0.4	0.7	0.5
재화 (Goods)	0.7	0.9	0.7
내구재	0.6	1.8	1.6
자동차 및 부품	0.7	3.8	2.8
가구 및 가정용품	0.9	0.8	1.1
여가 물품 및 운송기구	-0.4	0.8	0.6
비내구재	0.8	0.3	0.1
서비스 (Services)	0.5	0.5	0.3
주택 및 유틸리티	0.2	0.3	0.3
헬스케어	0.2	0.1	0.1
운송서비스	1.5	3.2	0.2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주요 국채 금리와 기간 중 변동폭



자료 : Bloomberg

외환: 美정부부채 한도 불확실성에 유의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6월내내 이어진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인해 재차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위험 기피가 높아진 대외 환경에 맞물려 1,130원대를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당분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겠으나, EU 경제회복 기금 집행 기대감 등으로 달러화의 일방적 독주는 제한되며 원/달러 환율은 1,120~1,130원대를 중심으로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기피 고조로 1,130원대 중심 변동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재개 속 달러화 강세 되돌림과 브라질 헤알 등 일부 신흥 통화 랠리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지속 등 비우호적인 수급 영향으로 1,130원대 중심의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이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등 매파적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로 일시적으로 반락하였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위험기피 심리를 자극하며 1,130원대로 반등
 - 다만 반기말 네고물량 출회, 수출호조세 지속 등으로 환율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


■ [국제 환율]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 지속

- 달러인덱스는 연준 위원들의 온건한 발언과 인프라 투자 진전 기대로 91pt대로 안정되는듯 하였으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우려로 92pt대로 반등
 - 6.24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 합의 소식은 단기적으로 위험선호를 자극하며 약달러 요인이나, 중장기적으로는 美성장 강화에 따른 강달러 요인으로 판단
- 유로화는 통계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의 PMI발표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및 물가지표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유로당 1.18달러대로 하락
 - 특히 영국은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가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파운드화 약세
- 위안화는 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긴장이 부각되고 부진한 Caixin 제조업 PMI 발표로 달러당 6.4위안대로 반등하며 약세
 - 한편 中통화당국은 예금금리 상한선 자율화 개혁(예금 기준금리+가산금리→예금 기준금리+고정금리) 실시를 발표하여 금융시장 개방 기초를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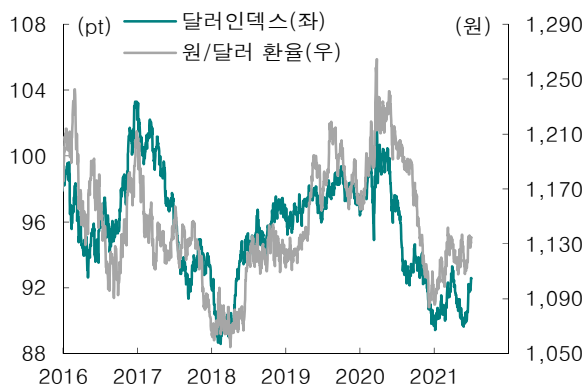
■ 美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 리스크에 주목해야 할 시기

- 현재 미국의 정부부채는 28.5조달러(6월말 기준)로 법정 한도 22조 달러 대비 6.2조 달러를 초과한 상황이며, '21.7월 법정한도 적용 재개를 앞두고 있음
 - '19.7월 정부부채의 법정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기 때문에 초과상태를 지속하였으나, 유예 조치가 곧 종료되며 8월부터 의회의 여름 휴회가 예정된 상황
-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가 한달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디폴트’ 사태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①부채증액 합의 혹은 ②유예기간 연장의 대책이 필요함
 - 과거 '11년, '18년, '19년 정부부채에 대한 양당의 합의 실패로 정부셧다운이 일어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사례 존재(11년에는 美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짐)
-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60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 10명의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 부채한도에 ‘조정권(Reconciliation)’ 활용 시 인프라투자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
- 팬데믹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양당간 한도 증액 합의의 가능성이 높겠으나, 합의 과정에서 노이즈 발생 및 부분적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 협상과정에서 한도 증액이 없이 유예 조치 연장으로 귀결이 될 경우 '11년 통과된 ‘예산제한법’에 의해 향후 美재정부양책의 자금조달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될 것

■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달러화 강세 압력 여전하지만, 일방적 독주는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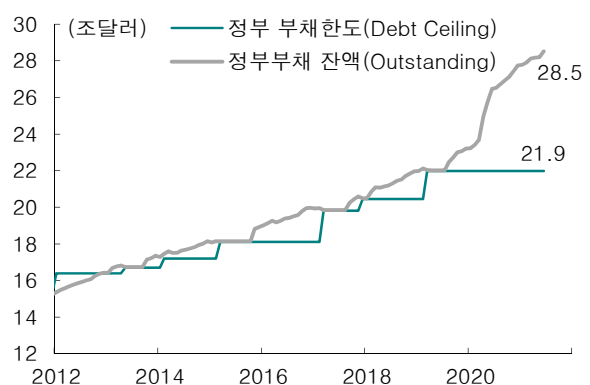
-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경계감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및 달러화 강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7월 경제회복기금 집행에 따른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이 달러화의 일방적 강세를 제한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0~1,130원대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부채한도를 초과한 美정부부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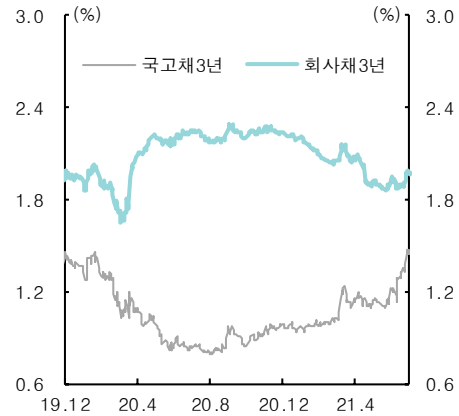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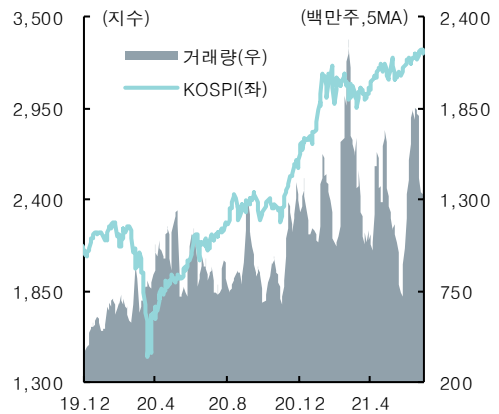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5월말	0.51	0.66	0.83	1.95	1.23	1.74
06월 25일	0.57	0.67	1.13	1.97	1.44	1.76
06월 28일	0.59	0.67	1.15	1.99	1.47	1.79
06월 29일	0.58	0.68	1.16	1.98	1.46	1.77
06월 30일	0.63	0.68	1.17	1.97	1.45	1.74
07월 01일	0.53	0.69	1.17	1.98	1.47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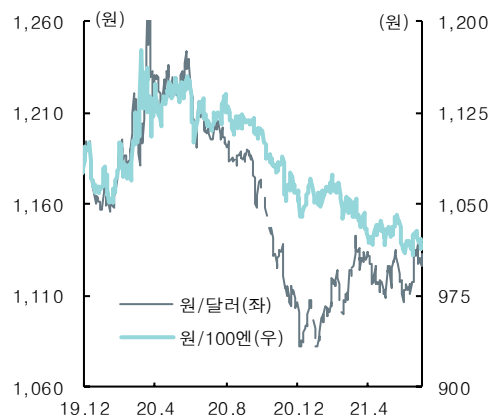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5월말	3,203.9	140,174	1,124	5,204
06월 25일	3,302.8	186,186	1,198	2,485
06월 28일	3,301.9	137,961	1,429	-868
06월 29일	3,286.7	155,095	1,213	679
06월 30일	3,296.7	156,467	1,610	70
07월 01일	3,282.1	160,760	1,159	-4,088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5월말	1,105.9	1,013.4	174.4	1,358.0
06월 25일	1,127.7	1,017.8	174.6	1,346.0
06월 28일	1,130.3	1,021.4	175.0	1,347.9
06월 29일	1,128.5	1,020.7	174.6	1,342.4
06월 30일	1,126.1	1,013.2	174.4	1,335.2
07월 01일	1,133.1	1,015.9	175.1	1,3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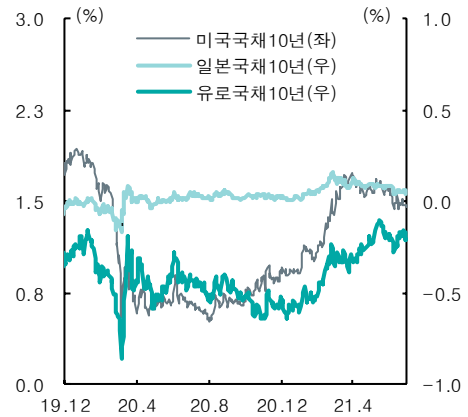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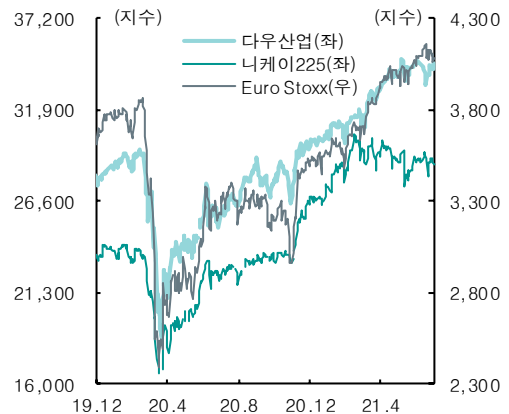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5월말	0.06	0.13	0.14	1.59	0.09	-0.19
06월 25일	0.10	0.15	0.27	1.52	0.05	-0.16
06월 28일	0.10	0.15	0.25	1.48	0.06	-0.19
06월 29일	0.10	0.14	0.25	1.47	0.06	-0.17
06월 30일	0.10	0.15	0.25	1.47	0.06	-0.21
07월 01일	0.08	0.14	0.25	1.46	0.04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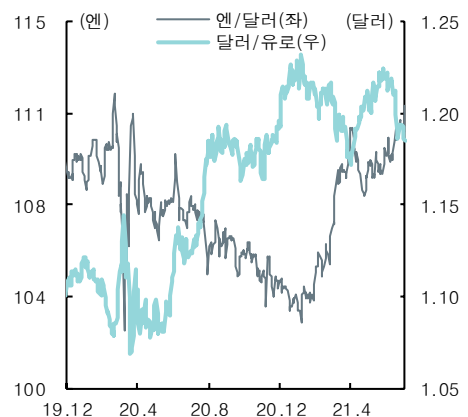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5월말	34,529.5	28,860.1	3,615.5	4,039.5
06월 25일	34,433.8	29,066.2	3,607.6	4,120.7
06월 28일	34,283.3	29,048.0	3,606.4	4,089.9
06월 29일	34,292.3	28,812.6	3,573.2	4,107.5
06월 30일	34,502.5	28,791.5	3,591.2	4,064.3
07월 01일	34,633.5	28,707.0	3,588.8	4,078.9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5월말	109.55	1.222	67.9	1,905.3
06월 25일	110.79	1.194	73.5	1,777.8
06월 28일	110.64	1.193	73.9	1,780.7
06월 29일	110.48	1.190	72.9	1,763.6
06월 30일	111.10	1.186	72.9	1,771.6
07월 01일	111.52	1.185	73.9	1,776.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7월 3일 인쇄

2021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